

폴리텍대학, 인공지능(AI) 기반 ‘3대 안전 콘텐츠’로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

- 안전 웹툰·사고사례집·교육자료 등 ‘AI 기반 안전 학습 체계’ 구축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변화하는 산업안전 환경에 발맞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전방위적인 안전문화 확산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실습 중심의 교육 특성을 반영해 학생들이 입학부터 취업까지 안전 수칙을 자연스럽게 내재화할 수 있도록 AI를 활용한 ▲안전 웹툰 ▲안전교육자료 ▲사고사례집 등 ‘3대 스마트 안전 콘텐츠’를 구축하고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가장 눈에 띄는 시도는 AI를 활용한 안전 의식 제고다. 한국폴리텍대학은 2월 초부터 공식 SNS 채널을 통해 AI 안전 웹툰 ‘폴리의 즐거운 안전 생활’ 연재를 시작했다.

대학 마스코트 ‘폴리’를 내세운 이 웹툰은 매월 1편을 발행하는 월간 연재 형식으로 기획됐다. 1·2월에는 ‘겨울철·명절 안전’을 테마로 2편을 발행해 구성원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향후 계절별 위험요인과 실제 사고사례, 생활 속 안전수칙 등을 시기적절하게 담아내 내부 구성원은 물론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실습 환경이 낯선 신입생을 위해 AI로 제작한 ‘신입생 연구실 안전 교육 자료’를 지난 2월 말 전국 캠퍼스에 배포했다. 이 자료는 입학 초기부터 체계적인 안전 행동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실습 전·중·후 단계별로 안전 수칙과 보호장비 착용의 중요성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제작되었다.

아울러, 2020년 이후 대학 내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인공지능(AI)로 분석한 데이터 기반 ‘사고사례집’을 3월 중 발간해 교내 자율 안전활동 및 보건 교육의 핵심 교재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안전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판단의 기준으로 체화해야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공지능(AI) 웹툰과 데이터 기반의 혁신적인 안전 콘텐츠를 통해 교육 현장의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실습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인공지능(AI) 활용 안전 웹툰
2. 신입생 연구실 안전교육 자료

담당 부서	경영관리실 홍보부	책임자	부 장	최진경 (032-650-6740)
		담당자	대 리	김재민 (032-650-6742)
	총무국 안전보건부	책임자	부 장	김평수 (032-650-6781)
		담당자	대 리	최지은 (032-650-6783)



강한 기술력
안전의 미래가 있다

KSHIFT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안전보건부

위험요인별 핵심 안전수칙 : 기계기구

●복장 점검

헐렁한 옷, 긴머리는
기계 회전부에 말려들어갈 위험

●방호장치

그라인더, 선반, 밀링, 드릴 등
방호장치 임의 제거 금지

●보호구 착용

비산하는 칩으로부터 눈, 피부 보호

●정지 후 조작

가공물 설치 등 조작은 완전히 정지 후



12